

스키 · 스노우보드에 몸을 실은 우리는 자유인

1991년 12월에 개설, 설립한 지 만 12년이 된 한국HP의 스키 · 스노우보드 동호회 '스노우 HP(회장 이강세 과장, 국제구매본부)는 스키는 물론, 요즘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모임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겨울 철, '스노우HP'는 움츠러드는 몸을 추스르고 눈발길을 오르내리며 사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동호회로서 매년 12월에서 익년 2월 사이에 5~7회의 정기모임을 갖는다.



가족 · 친구에 개방 ... '오픈동호회'

이 동호회는 사내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직원 400여명 중 평균 80여명이 자기의 일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0명 중 10~20% 정도는 HP직원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에 HP 직원들은 이를 '오픈동호회'라고 부른다.

중장년층 스키, 청년층 스노우보드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호회의 보수(?) 세력은 역시 30대 중반, 차장급 이상의 스키족이다. 이들은 스노우보드의 유행이 일시적인 바람이라며 언젠가는 스키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에 동호회 안에서도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진보(?) 세력이 있으니 이는 역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사원에서 과장급이 주류를 이루는 스노우보드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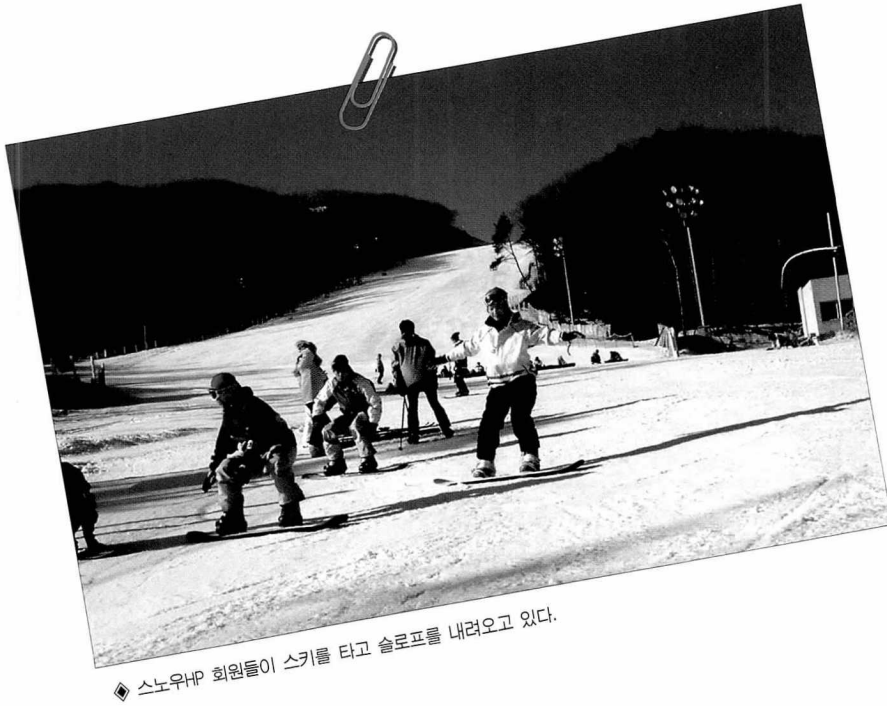
이다. 이들의 최근 활동은 매우 눈부시고 역동적이다. 동호회 내에서 소모임으로 활동하는 20여명의 스노우보드족들은 스키장 시즌권을 단체로 구입하고 시즌방을 운영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동호회장 자리를 맡게 된 이강세 과장도 스키보다는 스노우보드의 매력에 더욱 심취한 진보세력이다.

동호회비는 한 번 모임시 마다 1인당 2만원씩을 걷는데 이처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회사에서 활동 총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식사 및 장비대여료, 강습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

돼 있다. 스키장 출정을 앞둔 주의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방문 스키장 및 관련 계획이 공고되면 그 때부터는 숨가쁜 신청 싸움이 시작된다. 출정인원은 철저하고 공정하게 선착순 기준에 의해 선발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금이라도 녹장을 부리면 참석의 기회는 여지없이 딴 사람에게 넘어간다.

평먹고 일먹고 설원에서 꽃피운 사랑

'스노우HP'에서 가장 성공한 회원은 단연코 한수흠 부장(40세 · 서비스팀)과 허정열 사원(30세 · 서비스팀)으로 꼽힌다. 스키 동호회 초창기 회원인 한 부장



◆ 스노우HP 회원들이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다.



◆ 구랍 13일 용평스키장에서 단체사진 한 컷



◆ 스노우HP는 오픈동호회로서 직원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



◆ 스노우HP 회원들이 휴식하는 모습

은 일찍이 스키 뿐만 아니라 연애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내 그 어렵다는 사내결혼을 성사시켰다. 더구나 여기에 만족하고 않고 한 부장은 지금은 아들을 데리고 동호회 모임에 참석, 동호회원의 대를 이어 가고 있어 동호회의 전설(?)로 통한다.

또한 같은 부서의 허정열 사원은 열성적인 스노우보드 마니아로서 소모임 인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그리 많지 않은 나이이지만 스노우보드 경력 6년을 자랑하는 허씨는 개인적으로 각종 시합에 출전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초보 회원들에 대한 강습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허씨는 강습을 미끼(?) 삼아 음으로 양으로 연애 작업에 돌입, 올해 봄 드디어 사내커플로 거듭났다.

함께 하는 자리 만들었으면

스키나 스노우보드는 특성 상 각자의

실력대로 각각 초·중·상급 슬로프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즐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호회 모임이라 하더라도 동행한 친구나 가족, 아니면 같은 부서의 친한 동료들끼리만 얼굴을 맞대다 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과장은 최근에는 동호회 전체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먼저, 대절해서 가는 40인승 버스의 왕복시간을 활용해 회원들간의 분위기를 돋우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동안에도 따뜻한 음료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운동도 하며 업무는 물론, 세상사는 얘기를 하노라면 상호간에 정도 키우고 일주일간 쌓았던 스트레스도 미련 없이 눈발에 풀어놓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HP사장배 스키·스노우보드 대회 열릴까?

이 과장은 “스키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이 된 후 첫모임을 가질 때면 1년 간 기다리다가 눈을 탄다는 들뜬 맘에 다리를 빼거나 약간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본격적으로 슬로프를 지치고 내려오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 둘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그러면서도 동호회 설립 만 12년이래 그렇게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는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HP사장배 스키·스노우보드 대회’를 열어 명실상부 겨울철 최고 스포츠의 위력을 펼쳐보고 싶다. 하지만 언제 될 지는 모르겠다”며 너털웃음을 보였다.

〈조갑준 기자〉